

인공지능·블루 이코노미...신성장 미래 먹거리 기반 구축

광주시·전남도 반환점 돈 민선 7기 성과와 과제

민선 7기 전반기를 마무리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남은 2년 동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 산업과 블루 이코노미 산업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해묵은 현안인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군공항 이전 사업 해결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시,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교두보 확보=민선 7기 이용섭호는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등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광주의 미래를 바꿀 인공지능(AI) 산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다수의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역 내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법인인 GGM(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인사를 비롯한 보은성 코드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중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점과 진척 없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등은 '욕의 티'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년간 광주시의 대표적 성과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안착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의 '전국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행정·재정적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선 7기 광주시의 또 다른 성과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사업이다.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국가사업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시철도 2호선 등 현안 해결
군공항 이전·어등산 개발
후반기 풀어야할 숙제
전남, 예산 9조원 시대 열어
예산 확보·SOC 확충 성과
방사광가속기 실패 아쉬움
혁신공항·의대 유치에 총력

으로 확정돼 5년간 41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용섭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민선 7기 전반기 사업 중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광주지역 핵심 주력 산업단지 4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만 생산 유발 10조3641억원, 부가가치유발 3조2440억원, 투자유치 1조6000억원, 지역 일자리 5만7000여 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남은 2년 동안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그린·일자리 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각오다. 시는 또 15년간 장기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군공항 이전 등 해묵은 현안 사업



민선 7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지사.



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민사회, 주변 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대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남도, 국고예산 7조원, 전남예산 9조원 시대=민선 7기 전남도의 주요 성과 목록에는 예산 확보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례가 다수를 이뤘다. 전남

도는 29일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성과로 2020년 국고 예산 7조원, 전남 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과 경전선 순천-광주 구간 전철화, 남해안철도(부산-목포) 미개통 구간인 보성-목포 철도 신설 확정 등을 꼽았다.

지난 2년 전남도의 성과를 두고는 교통망에서 영호남 격차를 좁히는 실적을 냈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대형 국책 사업 유치를 통한 전남 발전의 발판 마련에는 실패했다는 혹평이 교차한다.

한전공대 설립의 경우 주요 성과로 제시됐으나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전남도에 돌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전남도가 성과 목록 첫머리에 올린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1018-2018년) 이후의 새천년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프로젝트는 아직 비전 제시 수준이어서 평가는 이른 상황이다.

성가로 내세운 광양항 물동량 3억t 달성 의 경우 2018년 3억300만t, 2019년 3억1100만t으로 물동량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세계적 물동량 감소와 올 봄 주요 선사 이탈로 물동량이 급감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사업은 정부가 대상지를 충북으로 결정하면서 전남도는 물론, 호남 지역사회 전반에 허탈감을 안겼다. 도전 정신과 목표 달성을 위해 광주시, 전북도 등 호남권을 한데 뭉치려 했던 리더십은 호평을 받을 만 하지만 목표 설정 및 상황 판단 능력, 정부 및 정치권 동향 파악의 정확성에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전략 수립의 적절성, 정부·여당 등 동향 파악의 정확성은 민선 7기 후반기 역점 사업 목록에 오른 혁신공항 건설, 전남권의대 유치 사업의 성과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의 경우 '정부가 전남에 빚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도전 자체를 실패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경제 혁신 성장 전략인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민선 7기 후반기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는 평가도 있다.

전남도가 공모 사업 탈락 이후 재차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재도전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도 적절한 판단인지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1조원대 과학기초 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최근 공모가 진행된 데다 정부의 정책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충청권을 포함한 범수도권(서울·경기·인천·충청) 비대화 내지 수도권 일변도의 문제인 정부 정책에 대해 제 목소리를 냈는지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 ‘스마트 전남학교’ 만들겠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취임 2주년 기념 브리핑

“모두가 빛나는 지속가능한 전남 교육 발전을 착실히 다져가겠습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29일 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념 비대면 기자 브리핑을 갖고 '지속가능한 전남 미래교육' 도약 의지를 천명했다.

장 교육감은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지금 교육현장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전남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학습자 친화형 원격수업 플랫폼을 준비하고, 수업용 태블릿 PC와 노트북 보급, 온라인 학습카페와 수업스튜디오 등 미래형 에듀테크 구축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장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전남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삶과 같이 연계된 역량중심 교육과정 ▲작지만 강한 전남형 강소학교 육성 ▲포용과 공정의 책임교육 ▲학습중심 전남교육 전환 ▲자치와 협치의 전남교

육 등 5대 핵심과제도 제시했다.

또 ▲AI·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계한 창의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작은학교 유형별 운영모델 창출 ▲보편적 생활·학습복지 확충 ▲전문적 학습공동체 일상화 ▲학부모·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 등도 추진한다.

장 교육감은 이와 함께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학생의 울골은 성장과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학생과 교실을 중심에 놓는 교육에 매진한 결과 현장에 많은 의미있는 변화를 일궈냈다”고 자평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2년 간 이런 이룬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계점을 보완해 아이들이 지식보다 삶의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남미래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학교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정면돌파...전화위복 계기 만들었다”

靑, 日 한국 G7 반대 강력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급속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한 일본의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단한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고,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앞당기는 등 성과를 만들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혼연일체가 돼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전략 및 계획 대국민보고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하게 하는 미국의 구상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몰염치를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며 “일본의 몰염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런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G7 확대 및 한국 참여 구상) 별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G7 확대 및 한국 참여' 구상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유명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데 대해 견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청와대가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19로 답답하시죠?

청정제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

- 제1일 : 제주 도착 - 숙소
- 제2일 : 호텔조식 후 출발 - 카멜리아힐 - 서커스월드 - 중식 - 서핑체험 - 제주비경 - 호텔
- 제3일 : 기념품전시장 - 승마체험 - 성읍민속마을 - 중식 - 에코랜드 - 해녀촌 - 제주출발

수학여행, 기업연수, 등반, 단체관광 전문

| | |
|---------------------|----------------------|
| 블루나레 (제주↔완도) | 골드스텔라 (제주↔여수) |
| 제주-육지 최단시간 1시간20분 | 초호화 대형여객선 |

한일고속 대표대리점 HANIL EXPRESS 제주여행은 승족레저관광과 함께 T. 064.747-8000 F. 064.747-2590 H. 010-6865-7000